

CULTURAL TREND

파리를 위한 꽃다발, 제프 쿤스의 <튤립 부케>
A bouquet of flowers for Paris, Jeff Koons' *Bouquet of Tulips*



Jean-Baptiste Gurlia © Ville de Paris

Public Art Taking Over World Cities

도시에 뜬 공공 예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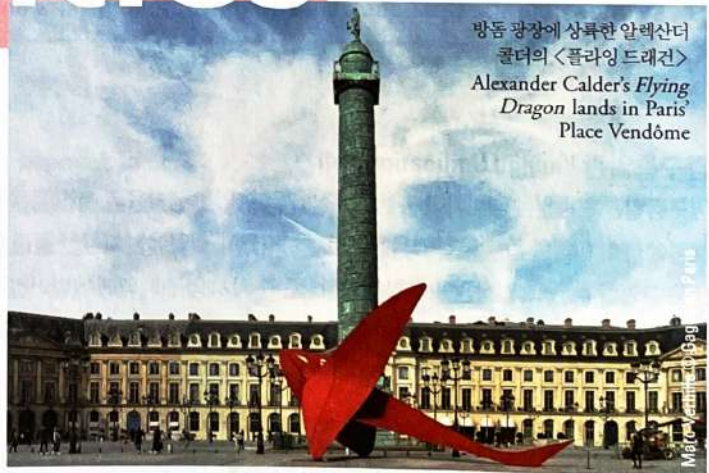
공공 예술의 역할은 이제 로컬의 예술적 경험을 넘어, 전 세계에 그 도시의 예술적 취향과 지향을 전하는 매개로 확장됐다. 파리에서 활동하는 미술사학자이자 장식미술사가 이지은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공공 예술과 그 의미를 탐색했다.

WRITTEN BY JI-EUN LEE (Art Columnist) EDITING BY JIN RYU

파리 프티 팔레에 설치된 장미셸 오토니엘의 작품
The work of Jean-Michel Othoniel installed in the Petit Palais



Claire Dorn / Courtesy of the Artist & Perroin



방돔 광장에 상륙한 알렉산더 칼더의 <플라이잉 드래곤>
Alexander Calder's *Flying Dragon lands in Paris*
Place Vendôme

Miguel Varona © Paris

The role of public art is expanding — it's now a vehicle for conveying a city's artistic tastes to the world and promoting the city as a destination. Ji-eun Lee, an art historian working in Paris, discusses public art and its mea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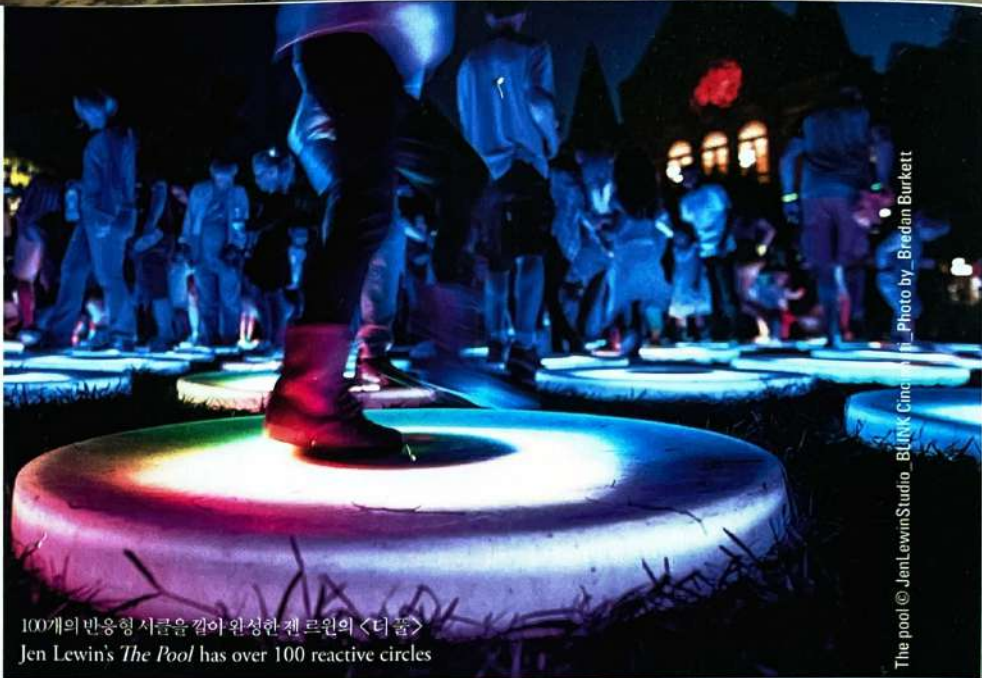
도시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이름, '뉴욕'은 공공 예술에 가장 적극적인 도시 중 한 곳이다. 누구나 1~2달러를 내고 참여할 수 있는 '퍼블릭 아트 펀드'가 한 예. 올봄, 뉴욕은 동물의 도시가 됐다. 파크 애비뉴 34번가를 따라 38번가까지 설치된 이드리스 비의 설치작품 얘기다. 알록달록한 컬러의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와 고릴라, 곰은 2023년까지 뉴욕인들의 일상에 함께한다. 디지털과 최첨단 기술로 확장된 공공 예술도 있다. 뉴욕의 인더스트리 시티 캠퍼스에 등장한 젠 르윈의 <더 풀>은 인더스트리

시티에서 진행되는 공공 예술 프로젝트, '콜리지온 프로젝트'의 우승작으로 100개의 반응형 디지털 서클을 바닥에 깔아 완성한 작품이다. 관람객들은 이 작품을 단순히 구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위에서 춤을 추고 뛰어놀며 자신의 몸짓, 움직임에 따라 색이 변하는 반응형 예술 작품과 함께 흥미로운 시간을 보낸다.

'디지털'에 대해서라면 세계 그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서울'은 건물의 외벽을 통째 화폭으로 삼는 미디어아트를 선보인다. 광화문 일대를 디지털 실감 콘텐츠로 채우는 <광화시대>는 도시의 중심 광장을 전 세계 매체 창작자를 위한 공공 미디어 캔버스로 만드는 프로젝트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외벽을 'ㄱ'자 형태의 초대형 미디어 캔버스로 재탄생시킨 <광화 벽화>는 서울의 역사, 문화예술, 라이프스타일, 자연을 담은 미디어아트, 영상으로 사람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다.

한편 예술과는 별 관련이 없어 보이는 도시에서도 공공 예술을 만날 수 있다. 인도 자이푸르 출신의 랜드아트 아티스트 비보르 소가니는 구자라트와 뉴델리에 각각 '소원을 이뤄주는 신성한 나무'라는 뜻을 가진 <칼파브릭샤>와 외계의 버섯 같은 독특한 모습을 가진 <더 스프라우트>를 세웠다. 스테인리스스틸로 표현한 이 압도적인 크기의 조형물을 통해 예술로 작은 지역사회부터 글로벌 커뮤니티까지 아우르고자 하는 작가의 야심을 엿볼 수 있다.

퍼블릭 아트에서 초대형 작품은 때로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는 이벤트로 발전한다. 2021년 9월 18일부터 10월 3일까지 공개된 크리스토폴와 잔 클로드의 <포장된 개선문>이 바로 그것.



100개의 반응형 서클을 깔아 완성한 젠 르윈의 <더 풀>
Jen Lewin's *The Pool* has over 100 reactive circles

The pool © Jen Lewin/Studio. BLINK Cincinnati. Photo by Bredan Burkett

This spring, artistic animals invaded New York's 34th and 38th Streets to see newly installed art by Idriss B. The colorful tyrannosaurus rex, gorilla, bear and other creatures will be part of the daily lives of New Yorkers until 2023.

Public art has also expanded to include cutting-edge digital technologies. Jen Lewin's *The Pool*, which appeared on the Industry City Campus in New York, took first prize in the *Collision Project*, a public art project put on by Industry City. The interactive piece consists of more than 100 reactive digital circles of light on the ground. Visitors are invited to dance and play on the circles, watching the colors change in response to their movements.

In Seoul, *Age of Light (Gwanghwa Sidae)* is a large-scale project that transforms Gwanghwamun Square into a public canvas for media creators around the world. The *Gwanghwa Mural*, which turns an exterior wall of the Seoul Museum of History into an enormous L-shaped canvas, is filled with videos of the history, culture, art and nature of the city. There is also public art in cities that aren't necessarily known for art. Vibhor Sogani, a land artist from Jaipur, India, installed *Kalpavriksha*, which means a "sacred tree that fulfills wishes," in Gujarat. He also installed a project in New Delhi, *The Sprouts*, which looks like a unique alien mushroom. These sculptures, massive in scale and made from stainless steel, are impressive examples of India's ambition to cover both



중강현실, 인공지능 등 실감 콘텐츠가 구현된 미디어 캔버스 <광화 벽화>
The *Gwanghwa Mural*, which incorporates cutting-edge technology



콜리전 프로젝트 우승작인 젠 르윈의 <더 풀>
Jen Lewin's *Collision Project*-winning art piece *The Pool*

안타깝게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관광객이 드문 시기에 공개되긴 했지만 <포장된 개선문>은 소셜미디어와 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가 공유하는 공공 예술로 자리매김했다. 덕분에 파리지엔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2만 5000m²의 재생 프로필렌 텍스타일로 개선문을 감싸는 장면부터 3000m가 넘는 붉은 밧줄로 텍스타일을 고정시키는 장면까지 작품의 시작과 끝을 지켜보며 <포장된 개선문>의 완성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 작품은 오랜 시간 같은 모습으로 자리를 지켜온 파리의 역사적인 건축물이 '새 옷'을 입었다는 시각적인 충격과 함께 변화무쌍한 날씨, 시간에 따라 색도, 감상도 달라지는 공공 예술의 '가변성'이라는 매력으로 보수적인 파리지엔들을 설득한 사건이자 이벤트로 남아 있다. 덧붙이자면, 사실 파리는 현대미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공공 예술에 다소 보수적인 입장과 환경을 가진 도시다. 시내의 공원, 건축물이 대부분 문화재로 등재되어 있어 새로운 프로젝트를 허가받는 절차부터 복잡하다. 파리의 공공 예술은 특정 이벤트에 맞춰 일시에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형식이 많다. 100년이 하루 같은 파리 특유의 감성을 존중하면서도 오늘을 이야기하는 예술을 향유하는, 지극히 파리다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겨울부터 올봄까지 파리를 산책하는 기쁨을 더해진 알렉산더 콜더의 <플라잉 드래건>은 파리의 메이저 아트페어인 피악(FIAC)을 기념해 설치되었다. 피악에서는 매해 시민들까지 함께 페어를 즐길 수 있도록 '벽을 넘어서'라는 공공 예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조아나 바스콘셀루스의 <파리의 하트>
Joana Vasconcelos' *Cœur de Paris*



local and global communities with public artworks. Some large-scale public art installations become events that move the world. One example is *L'Arc de Triomphe, Wrapped* by Christo and Jeanne-Claude, which was displayed from September 18 to October 3, 2021. Although it was unveiled during the pandemic, images of the public art piece were shared worldwide through both traditional and social media. As a result, Parisians and foreigners alike were able to witness the wrapping of the Arc de Triomphe in 25,000m² of recyclable silvery-blue polypropylene fabric, tied on with 3,000m of red rope. The historical landmark dressed in "new clothes" was startling to behold as the color and ambiance changed depending on the weather and time of day, making the installation an event in and of itsel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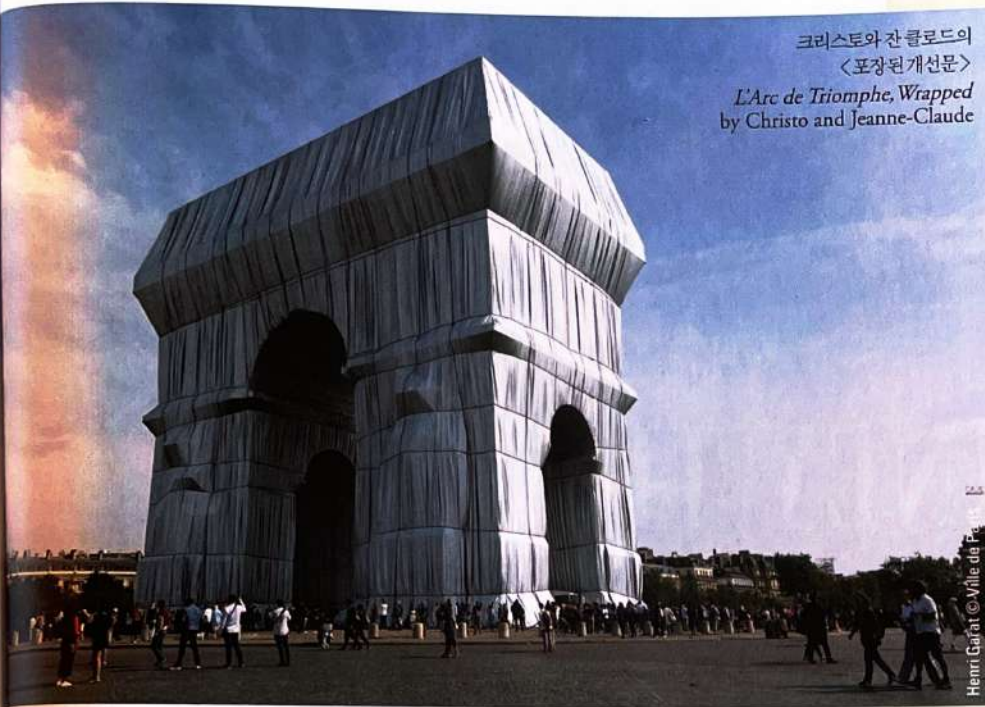
Public art in Paris is often created for specific times or events and as such, it frequently appears and disappears. Last winter, red airplanes were installed by Alexander Calder in the Place Vendôme to add to the joy of walking around Paris. The installation will be up until this spring and was created to celebrate FIAC, a major art fair in Paris. As part of FIAC, the public art project *Hors les Murs* is carried out every year so that citizens can enjoy the fair together. Alexander Calder's work was the main event.

Tuileries Garden, located in downtown Paris, near the Louvre Museum and the Seine River, features such a variety of public art installations

비보르 소가니의
<칼파브릭샤>
Vibhor Sogani's
Kalpavriksha



크리스토와 잔클로드의
〈포장된 개신문〉
L'Arc de Triomphe, Wrapped
by Christo and Jeanne-Claude



Henri Garat © Ville de Paris

콜더의 작품은 이 프로젝트의 메인 이벤트였다. 프랑스인들은 두서없이 걸어 다니며 도시를 향유하는 이를 일컬어 플라노르라는 시적인 이름으로 부른다. 이 플라노르들이 모이는 공원 역시 공공 예술의 메카다. 특히 킬리 공원은 루브르와 센강이라는 파리 시내 중심가 중의 중심가에 위치해 갈 때마다 바뀌어 있다고 할 만큼 다양한 공공 예술을 소개한다. 올해는 포르투갈과 프랑스의 해인 만큼 포르투갈 출신의 컨템퍼러리 아티스트 페드르 카브리타 헤이스의 삼미신상, <레 트루아 그라스>가 설치되어 있다. 그 밖에도 킬리 정원에서는 루이즈 부르주아의 <웰커밍 핸드>, 안 로세트의 <1, 2, 3 그리고 우리>를 비롯해 다양한 작품들이 도시인들을 유혹한다. 공공 예술에 대한 파리의 지대한 관심은 도시 외곽에서도 만날 수 있다. 파리와 외곽 사이를 잇는 트램웨이 T3는 최근 시의 전폭적인 후원 덕분에 컨템퍼러리 공공 예술을 만날 수 있는 장소로 거듭났다. 파리 13구 트램 정거장에 설치된 디디에 마르셀의 <하늘의 바윗덩어리들>이 대표적인데, 공중에 떠다니는 바윗덩어리와 트램웨이의 조화는 도시와 산업의 시라고 할 만큼 신선한 경험을 선사한다. 베틀시장이 있는 클리니앙쿠르 트램웨이를 환하게 밝히는 하트, 조아나 바스콘셀루스의 <파리의 하트>도 그중 하나. T3 트램웨이 프로젝트를 넘어서 파리시에서는 해마다 밸런타인데이를 맞이해 사랑에 관련된 컨템퍼러리 작품을 파리 여기저기에 설치한다는 뉴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산책하며 도시를 향유하는 플라노르에게 퍼블릭 아트는 선물이다. 계절과 시간에 따라, 언제 어느 시기에 찾느냐에 따라 자연처럼 끊임없이 모습을 바꾸며 산책자를 매혹시킨다. 공공 예술은 이제 그곳에 사는 로컬뿐 아니라 동시대의 예술을 향유하는 아트 러버를 그 도시로 불러모으는 힘을 가진 존재가 됐다.

that they seem to have been switched out every time you go. This year is the year of Portugal and France, so Pedro Cabrita Reis, a Portuguese artist has installed three statues known as the *Les Trois Graces*. Other works in the Tuileries Garden, including Louis Bourgeois' *Welcome Hands*, attract city dwellers. However, one does not need to actually live in the city to be exposed to public artworks. The Tramway t3, which connects Paris to the surrounding suburbs, has recently become a place to see contemporary public art thanks to the support of the city government. Didier Marcel's *Les Rochers Dans le Ciel*, installed

in the tram station in the 13th arrondissement of Paris, is a prime example, with the floating blocks and tram stations creating a special harmony. In addition to the Tramway t3 project, the city of Paris also recently announced a new project that will involve installing contemporary works related to love around Paris on Valentine's Day every year. Public art is a gift for those who like to enjoy cities by strolling around. Since it eliminates the need to buy tickets and walk into a museum, public art has the power to not only attract local residents but also visitors from abroad.

킬리 공원에 나타난 페드르 카브리타 헤이스의 작품
Pedro Cabrita Reis' *Les Trois Graces*, in the Tuileries Garden



Marc Verhite © Ville de Paris